

특별기고



유두석  
장성군수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실로 오랜만에 장성에 제법 눈이 내렸다. 늘 결정해야 할 일과 만나 봐야 할 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상이지만, 이른 새벽이라면 장성의 절경을 감상하는 데 시간을 오롯이 쓸 수 있을 터. 동이 뜨기 전부터 운 동화 끈을 고쳐 매고 축령산을 찾았다. 초입로를 지나 눈길에 남겨진 내 발자국들을 한동안 뒤로 밀어내자, 머지않아 축령산의 자태가 한 눈에 들어왔다. 눈을 맞은 채 사이좋게 어깨를 겹친 하얀 산자락들이 내가 걸어온 산길을 물끄

축령산에서 새벽을 맞으며

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한껏 휘어진 언덕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경치를 감상했다. 축령산은 흔히 '기적의 산'으로 불린다. 한 명의 힘으로 일군 숲이기 때문이다. 춘원 임종국 선생이 1956년부터 별거숭이 땅에 나무를 심어 조림했다.

오늘 때마다 감동주는 기적의 산

잠빛처럼 가지런히 자란 뺨뺨한 침엽수림이 유럽풍의 이국적인 정취를 선사한다. 축령산은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편백나무 외에도 삼나무, 낙엽송, 테다소나무, 리기다소나무 등 수령 50여 년의 나무가 700여 헥타르 가량 널찍하게 분포된 '나무의 바다'이다. 문득, 일전에 봤던 수목화 한 폭이 떠올랐다. 축령산은 그린 오윤석 화백의 작품으로, 묵을 묻힌 나무젓가락을 이용해 화폭에 수백 번씩 자국을 내 가며 나무와 이파리들을 표현했다고 들었다. 작품을 감상하며, 그가 그림에 들었을 공과 시간이 기쁨으로 전해졌던 기억이 남아있다.

생각해보면, 오래 전 누군가는 목포과 삼을 들고 축령산을 그렸고, 다른 누군가는 그 축령산을 보고 나무젓가락으로 수목화를 그린 셈이다. 그리고 거기엔 공통적으로, 오랜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누가, 무엇으로 축령산을 그리고 있을까?

돌아보니 나 또한 더 나은 장성을 그리기 위해, 주어진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왔다. 지자체 최초의 컬러 마케팅인 '엘로우시티 프로젝트'를 펼쳤으며, 황룡강과 장성호, 축령산의 관광자원적인 가치를 재발견했다. 황룡강 노란꽃잔치로 '백만관광시대'를 열었고, 장성호는 출렁다리와 나무 데크길을 만들어 '명품 트래킹 코스'로 탈바꿈시켰다. 축령산은 숲 자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늘다리와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장성군이 지니고 있는 자연환경이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부터 비롯됐다. 이처

럼 나는 장성의 일진월보(日進月步)를 위해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마더 테레사는 그녀 스스로를 '하느님의 몸담아'라 칭했다고 한다. 연필 자체는 보잘 것 없으나 하느님은 그것을 이용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고, 그녀는 말했다.

미래장성 군민들이 그리는 것

지금의 장성은, 그리고 앞으로의 장성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장성을 그리는 연필 내지 젓가락에 불과하다. 모든 그림은 나를 손에 쥔 우리 군민들이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산을 하며 군민께서 나를 많이 찾아주시고, 더 많이 써주시기를 축령산에 빌었다. 어떤 그림이 될지는 걱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이므로.

기해년 축령산에서 만난 새벽 바람은 내일의 희망이 담긴 곡조 없는 노래였다.

기고



이은아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3월 13일에는 전국 1,344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어진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등 얼룩졌던 불행한 과거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바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 지역 광주에서만 해도 벌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제공 등으로 인해 4건의 고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도 금품선거가 재연되지 않을까는

돈 선거 척결, 공정하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첫걸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조합원과 입후보예정자 모두 표를 돈으로 사는 돈 선거는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조합원 모두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금품선거를 척결하려는 강력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돈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가 후보자의 식견이나 공약 대결보다는 자금력 겨루기로 전락해 조합장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자가 당선되어 당선인의 정통성 상실되고, 조합의 이익보다는 조합장 개인의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필연적으로 조합의 재정 자립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돈 선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하고 있다. 광역 조사팀을 편성해 야간 단속 활동과 조합의 정기총회 등 계기를 이용한 포상금·과태료 제도 홍보도 이런 맥락이다. 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선거

에 대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을 최고 3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금품·음식물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시켜 주고 있다.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받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처벌하고 있다.

조합 설립 목적은 조합원 생산 물품의 유통 원활화 및 조합원에 대해 기술·자금·정보제공을 통해 조합원의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향상이다.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조합 직원의 인사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조합의 설립 목적과 조합장의 권한을 보면 왜 조합장 선거가 중요한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조합의 목적 달성을 통한 조합원의 복지 향상의 선결 조건이 공정선거라고 할 수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는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조합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것임을 명심하고 돈, 혈연, 지연 등 과거의 잘못된 선거 관행에서 벗어나 공약·식견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조합의 현안 등을 공약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좋은 정책을 제시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 자크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과 자유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되는 제도'라고 했다. 조합원들은 비록 1g도 안 되는 투표용지이지만 그 투표용지가 하나하나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조합과 조합원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사설

자유한국당, 금남로 외침에 응달하라

광주시민들이 39년 전 그 자리에 또다시 모였다. 자유한국당의 무책임성을 규탄하고 5·18 '망언 3인방'의 퇴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자유한국당 5·18망언 의원 3인'을 퇴출과 5·18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을 위한 광주법시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지난 16일 금남로 '옛 도청 앞' 집회에는 모두 1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했다. 5.18이 일어난 지 실로 39년 만에 그날 그 자리에서 5월 부정세력들을 향한 광주시민들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애국가를 부르던 그날의 비장한 심정으로 '5.18 부정세력'을 규탄하고 이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또 5·18을 왜곡·편향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총칼로 이뤄진 학

살이 망언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5·18 유공자와 가족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나고 있다"며 "더 이상 5·18이 폄훼되고 왜곡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후식 5·18 부상자 회장은 "5·18을 부정하는 자유한국당과 지만원은 나라의 모든 법률·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세력이자 반국가 집단"이라며 "한국당은 망언 국회의원을 제명하고, 역사관이 검증된 5·18 진상조사 위원회 즉각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의 궤기대회를 시작으로 '5·18 부정세력'에 대한 제2의 투쟁이 시작됐다. 광주시민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 이다. 자유한국당은 통절한 반성으로 광주시민에 응달해야 한다.

다시 태어나는 전일빌딩을 기대한다

5·18의 역사를 간직한 광주 전일빌딩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18일 오전 전일빌딩 옥상에서 리모델링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에는 국비 130억원과 시비 354억원 등 총 484억원이 투입되며,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인 내년 3월 완공한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전일빌딩은 1968년 준공된 이후 네 차례의 증·개축을 거친 노후 건물이다. 50년의 역사 동안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자리해 전일빌딩에 대한 지난 기억 하나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시민과 친숙했다. 특히 전일빌딩은 시민군의 마지막 항전지였던 전남도청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위치해 오월의 참사를 함께 했다.

지난 2011년 기존 소유자의 경영 약화로 경매에 나와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했고, 시설 노후화로 2016년부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러나 5·18 당시 헬기 총탄의 흔적이 발견되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오늘 기공식을 갖는 전일빌딩은 광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나누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하 1층-4층은 현재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5-7층은 광주 미래 먹거리인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공간이 들어선다. 8층은 회의실과 스카이라운지로 이용되며, 9-10층은 5·18 총탄흔을 원형보존한 기념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번 리모델링에서 안전을 보강하고 내진보강공사까지 마치면 전일빌딩은 광주의 상징과 역사성을 담고 인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능도 보완·지원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앞으로도 광주의 역사와 함께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써 전일빌딩에 큰 기대를 건다.

정부와 사립유치원에 바란다

기시수첩

사립유치원과 정부 간 힘겨루기가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이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 불행한 일이다. 어린이들이 뛰노는 유치원을 불모로 어른들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면서 그 피해는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한유총에 당부한다. 아무리 '사립'이지만 공공성 강화는 선선히 받아들여야 바쁘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요구는 타당하다. 자꾸 회계 개편에 반대하면 부정합 집단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당국도 강경일변도의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75% (원아수 기준)에 달하는 사립유치원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준비할 시간과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이름 그대로 엄연히 사유재산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국공립 유치원의 공백을 잘 메워준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의 자긍심을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가



조기철  
사회부 부장

하지만 공공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가장 먼저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에듀파인을 사용하기 어려운 영세한 사립유치원은 전문가 집단인 공인회계사회 등이 정부와 협의해 대리인을 통해 회계보고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있어 가장 경제해야 할 것이 진영논리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시선이 쏠린 것은 정부가 '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집단이익 관철을 위해 학부모, 아이들을 '불모' 삼는 식의 행태 때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특지광장

탈북민 문화적 편견 여전

최근 모 연구원에서 국내 정착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탈북민 사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자면 17년-18년 입국한 탈북민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9.7%는 남한 주민이 친근하다고 답했으며 71.2%는 포용성이 있다고 응답을 했다. 남한 생활 만족도도 77%에 달하고 탈북민 10명 중 8명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한다.

자유를 찾아 떠났던 남쪽나라에서 만난 주변 사람들에게 탈북민들은 좋은 인상을 갖고 남한 생활에 만족하고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반면 입국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 문제, 탈북민에 대한 편견, 외로움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는 점은 아쉽다. 자유 대한민국 사회와 다른 폐쇄적 북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입국 이후 겪게 되는 생소한 문화적 차이에 혼돈이 상당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언어 제반 문제는 오로지 탈북민 혼자서 감당하고 극복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

흔히 탈북민이라고 편이상 칭하지만 사실 그들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한 민족으로 자유체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하여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하고 자유의 품에 안겨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고 이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앞으로 더 많은 수의 탈북민이 자유 대한의 땅을 찾아 입국이 잇따를 것이다.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김덕형

특지광장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교육 생활화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의하면 약 60% 가량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67.9%가 3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고 한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유아 사고들은 주변에 대한 호기심과 충동성이 높은 반면 운동기능과 판단이 미숙해 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보다 자세하게 관찰하고 대처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첫째 전선 및 콘센트를 주의해야 한다. 전선은 아이가 손으로 잡고 쉽게 잡아 다니는 일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고, 콘센트 안전커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창문 근처에 의자나 침대가 있으면 아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올라가지 못하게 예의 주시하거나 그쪽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셋째 아이들은 건전지를 이용하는 장난감, 리모콘 등을 열어 입에 넣는 경우가 많다. 스키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 주거나 나사로 고정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 안전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미리 익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상 어린이들의 돌발행동에 대해 어린이 눈높이에서의 깊게 돌보는 한편 어린이들이 안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각 가정차량용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무안소방서 무안안전센터장 백종희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fire, and social welfare.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단)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홍남 편집국장 정正龍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98,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편집 부 (062) 720-1070
경 제 부 (062) 720-1066-67 기획 실 (062) 720-1005
사 회 부 (062) 720-1050-54 논 설 실 (062) 720-1032
사 회 2 부 (062) 720-1043-45 월 간 국 (062) 720-1006-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관 리 국 (062) 720-1012
서부권본부 (061) 285-9816-17 판 매 국 (062) 720-1098
문화체육부 (062) 720-1071-72 사 업 국 (062) 720-1011
사 진 부 (062) 720-1040 광 고 국 (062) 720-1016-17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4 FAX (062) 720-1080-82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